

‘민족제일’에서 ‘국가제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의미와 전망

전영선 | 건국대학교 연구교수 | multiriend@naver.com

I. 머리말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김정은 시대 국가 어젠다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17년 11월 30일 『노동신문』 사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이었다.¹⁾ 이후 2018년부터 ‘우리 국가제일주의’ 관련 기사를 게재하기 시작하였고, 국가 상징물 교양 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국가 어젠다로 제시하였다.²⁾

이후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전면적 국가부흥시대의 새로운 이념’으로 규정하면서 2019년 내내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을 비롯한 관련 기사를 게재하였고, 노동당 선전선동 사업의 핵심 주제로 부각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노동신문』 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통해 북한이 지향하는 새로운 국가 운영 방향 및 목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등장 배경과 내용을 통해 향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방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1) 2017년 11월 30일 자 『노동신문』 사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 중: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국가제일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의 서사시로 력력히 아로 새겨야 한다”

2) 김정은, 「신년사」, 『노동신문』, 2019년 1월 1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며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우리 손으로 세상에 보란듯이 훌륭하게 꾸려나갈 애국의 열망을 안고 성실한 피와 땀으로 조국의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기야 합니다.”

II.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등장과 확산

1. 우리 국가제일주의 등장과 국가 상징 교양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7년 화성15형 발사 기사였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 발사를 '민족의 대경사이자 '국가의 경사'라고 하면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국가제일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심장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영웅적 투쟁과 위훈의 서사시로 력력히 아로 새겨야 한다"³⁾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2018년부터 '우리 국가제일주의' 관련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여성』 2018년 2호에 박스 기사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게재하였다. 『조선여성』 2018년 6호에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을, 2018년 7호에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본 요구」를 게재하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2018년 하반기부터 『노동신문』을 통한 국가 상징 기사로 옮겨졌다.

2018년 11월 11일 『노동신문』에 「민족의 역센 기상의 국수 소나무(1)」를 시작으로 국견(國犬) 풍산개, 국조(國鳥) 참매, 국화(國花) 목란꽃 기사를 각각 11월 18일, 11월 25일, 12월 2일, 12월 9일, 12월 23일에 게재하였다. 이어서 2019년에는 국호(國號), 국장(國章), 국가(國歌), 국어(國語) 등을 추가하면서 국가 상징 기사를 고정하여 연재하였다.⁴⁾ 2018년부터 시작한 국가 상징 교양 사업은 국호·국장·국기·국가에는 "공화국의 성격과 사명, 발전전망과 위력" 등이 집대성되어 있으며, 국어·국화·국수·국견에는 "민족의 우수하고 아름다운 민족적 전통"이 담겨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⁵⁾

북한의 국가 상징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북한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 상징물이다. 나라 이름인 국호, 국기, 국가, 국화, 국장은 헌법에 규정된 상징이다.

다른 하나는 '민족적 전통'이 있다고 문화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2018년 『노동신문』에서 소개한 국가 상징 중에는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국수(國樹) 소나무, 국견(國犬) 풍산개, 국조(國鳥) 참매, 국주(國酒) 평양소주 등이다. 법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이들 상징을 헌법에서 규정한 상징과 나란히 소개함으로써 공식적

3) 『노동신문』,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 2017. 11. 30.

4) 『노동신문』, 「우리의 국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9. 1. 23; 『노동신문』, 「발고 아름다우면서도 뜻이 깊은 국장」, 2019. 1. 26; 『노동신문』, 「송고한 조국애를 깊이 심어주는 《애국가》」, 2019. 2. 2일; 『노동신문』, 「세상에 자랑높은 우리의 국어」, 2019. 2. 4일; 『노동신문』, 「우리 민족의 슬기로운 기상을 담은 국화-목란꽃」, 2019. 2. 7.

5) 국견 풍산개, 국조 참매, 국화 목란꽃 등이 역사적 유래, 주요 산지, 문화 생산물, 민족적 성격 등을 소개하였다. 국가 상징과 관련한 주요 기사로는 『노동신문』, 「민족의 자랑 조선의 국견-풍산개(1)」, 2018. 11. 25일; 『노동신문』, 「민족의 자랑 조선의 국견-풍산개(2)」, 2018. 12. 2; 『노동신문』, 「민족의 슬기와 용맹한 기상이 어린 조선의 국조-참매」, 2018. 12. 9일; 『노동신문』,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더해주는 조선의 국화-목란꽃」, 2018. 12. 23. 등이 있다.

국가 상징의 위상을 부여하였다.

국가 상징에 대한 교양 사업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슬기롭고 아름다우며 강의한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심어주는데서 국수, 국견과 같은 국가상징에 대한 상식을 넓혀주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⁶⁾라고 평가하였다. 2019년에는 나라 말인 국어(國語), 나라의 풍속인 국풍(國風)에 대한 교양 사업을 추가하였다.⁷⁾

국가 상징을 이용한 교양 사업은 문화분야에서도 확인된다. 2018년 건국 70주년 기념으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공연하였고, 2019년에는 <인민의 나라>를 공연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전문예술인과 학생,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10만 명 규모의 퍼포먼스이다.⁸⁾ 2002년 이전까지는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과 같이 당과 관련한 주제로 일관하다. 2002년 처음 민족적 색채를 드러내는 <아리랑>이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민족을 상징하는 민요 <아리랑>을 주제로 ‘아리랑 민족’으로서 고난과 역경의 과거를 딛고 강성부흥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주제로 한다. 2002년 첫 공연 이후 2015년까지 14년 동안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하다 그 이후로는 민족성을 드러내는 아리랑이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조국’, ‘국가’를 타이틀로 내세웠다.

문화를 통한 국가주의의 내면화 작업은 2019년 가요 <우리의 국기>를 통해 절정에 이르렀다. 가요 <우리의 국기>는 국기(國旗)를 전면에 내세운 노래이다. 가요로서는 이례적으로 2019년 1월 1일자 『노동신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필 사인과 함께 악보를 게재하였다.⁹⁾ 『노동신문』에 노래가 실리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가요가 『노동신문』에 소개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흔치 않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1월 1일에 게재된 경우도 2차례 있었다. 2011년 1월 1일에 가요 <승리의 길>이 있었고, 2012년 1월 1일에는 ‘새로운 100년이 노래로 시작하였다’는 의미를 담아 1면에 가요 <조선의 힘>을 게재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하여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공식으로 언급한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 이어 같은 날 『노동신문』 지면 3면에는 가요 <우리의 국기> 악보와 가사와 함께 <우리의 국기> 악보 위에 “노래가 대단히 좋다. 전체 인민의 감정이 담긴 훌륭한 노래를 창작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만족하게 생각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필을 게재하였다.

6) 『노동신문』, 「국가상징을 통한 교양사업의 중요성」, 2018. 11. 18.

7) 북한은 2019년 1월 24일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9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평양에서 진행하였다. 회의 마지막에는 당에 드리는 맹세문과 전국의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척후대의 영예를 빛내이며 청년들 앞으로!」를 낭독하고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결정서의 주요 내용 중에서는 ‘국기와 국장, 애국가를 신성하게 대하며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 강국의 위상에 어울리는 새로운 국풍을 창조하고 조국보위를 제일국사로 간주하는 애국기풍이 온 나라에 차 넘치게 하자. ‘청년동맹일군들부터가 우리 민족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며 청년동맹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조직, 전개하여 큼직 큼직한 실적을 내자는 결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8)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기원은 1930년대 시작된 집단체조에 배경대(카드섹션)이 결합된 형식으로 전문예술인과 청년학생, 어린이, 각계 단체가 참여한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아리랑)은 민요 아리랑을 기본 주제로 민족의 역사를 파노라마 형식으로 보여준다.

9) 2019년 1월 1일 『노동신문』 3면에 “노래가 대단히 좋다. 전체 인민의 감정이 담긴 훌륭한 노래 창작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만족하게 생각한다. 널리 보급할 것”이라는 김정은의 친필이 들어간 악보 <우리의 국기>를 수록하였다.

특정 가요에 대해 직접 높은 평가를 하고, 친필 사인을 공개한 것은 김정은 시대에서는 처음이었다. 2019년 1월 1일 직전인 2018년 12월 29일자 『노동신문』에는 「미술교육과 우리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미술교육에서 국기를 비롯한 국가상징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사’가 실렸다.¹⁰⁾ 국가 상징에 대한 교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최고 상징인 국기를 찬양하는 가요에 힘을 실어준 것은 국가 상징 교양 사업에 대한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2.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이론화

2019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공식화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이후 『노동신문』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며 관련 논설, 사설, 기사들이 속속 게재되었다. 2019년 1월 한 달 동안 『노동신문』에 실린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관련한 기사를 살펴보면 1월 8일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1월 16일 「우리 국가제일주의기치높이 최후승리 앞당겨오리」, 1월 17일 「(사설)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힘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자」, 1월 18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떨치는 사회주의 우리 국가」, 1월 20일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 1월 21일 「(사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1월 22일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중요한 내용」, 1월 27일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 등 8건이 있었다. 그것도 일반 기사가 아닌 사설과 논설 형식으로 게재하였다.

북한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부강조국건설에서 세계가 우리러보는 위대한 승리와 특출한 성과를 이룩해놓은 인민만이 당당히 가질 수 있는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전면적 국가부흥시대의 새로운 이념’¹¹⁾이자, “사회주의 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¹²⁾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우리 국가제일주의에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비롯한 사상리론들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우리 식, 주체식으로 풀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의 의지가 맥박치고 있다”¹³⁾라고 하였다.

10) 김우진, 「미술교육과 우리 생활」, 『노동신문』, 2018년 12월 29일 :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자기의 더운 피와 땀으로 지키고 가꾸어 갈 줄 아는 참다운 애국의 마음을 후대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자면 우리식의 아름다움을 미의 기준, 미의 표준으로 여기고 사랑하도록 그들에 대한 미술교육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보적인 미적의식과 미적정서를 안겨주는 유치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단계의 미술교육에서는 무엇보다먼저 김일성화와 김정일화, 우리 나라의 국기와 국장, 국수, 국건, 국조, 국화를 비롯하여 절세의 위인들을 칭송하고 나라를 상징하는 대상들을 그림으로 아름답게 그려낼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각이한 종류의 미술작품을 창작할수 있는 기초를 다져주어야 한다.”

11) 『노동신문』,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 『노동신문』, 2019. 1. 27.

12) 『노동신문』,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는것은 숭고한 애국사업」, 『노동신문』, 2019. 3. 30.

13) 『노동신문』,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 『노동신문』, 2019. 3. 31.

또한 선대 수령의 사상이론을 받아 “사상리론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현명한 령도”로 혁명과 건설의 문제를 ‘우리식’, ‘주체식’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시대의 사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력사적 전환기에 들어선 오늘의 현실은 전체 인민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¹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국풍(國風)’, ‘전 인민적 애국기풍’과 연결하여 국가 상징의 일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 인민적인 애국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국기와 국장, 《애국가》를 신성하게 대하고 국가의 모든 법들을 절대 존중하는 준법기풍을 확립하며 국화와 국수, 국조, 국건과 같은 국가상징들을 잘 알고 애호하는 사회적 풍조를 조성하는것이 중요하다”¹⁵⁾라고 하면서 국가 제일주의 교양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보고대회를 여러 단위에서 개최하여 우수 사례를 소개하였다.¹⁶⁾

III.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정치적 함의

1.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

북한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을 “세계가 공인하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에 상응하면서도 우리 인민의 강용한 기상과 지향에 부합되는 투쟁의 기치”¹⁷⁾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핵무력을 완성한 ‘세계가 공인’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조하면서, 북한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확보하고, 외교 무대의 중심에 서고자 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공식화된 2019년은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1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한 다음이었다. 2차 북미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과 마주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세계와 어깨를 겨루는 당당한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핵무력을 완성하여 국제무대에서 대접받

14) 『노동신문』,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는것은 숭고한 애국사업」, 2019. 3. 30.

15) 『노동신문』,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기 위한 방도」, 2019. 2. 20.

16) 2019년 3월 8일자 『노동신문』 사설 「조선녀성들은 사랑과 헌신으로 사회주의조국을 받들어가는 참된 애국자들이다」 중: 오늘 우리 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담보를 가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고 있다. 중대한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오늘의 현실은 모든 공민들의 사상정신과 일본세에서 일대 변화를 일으킬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녀성들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조국을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리상사회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야 한다.”

17) 『노동신문』,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2019. 1. 8.

는 당당한 나라가 되었으니, 이처럼 당당한 국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곧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구체화된 것이다.

2019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공식화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연결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상적인 업적의 위치에 올랐다. 2019년 3월 31일 『노동신문』 기사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향도해나가시는 걸출한 위인, 희세의 정치가이시다”라고 하면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비롯한 사상리론들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우리 식, 주체식으로 풀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의 의지가 맥박치고 있다”라고 하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사상리론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리해안의 선견지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수령님들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되었으며 우리 조국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식, 주체식으로 풀어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을 이은 지도자로서 새로운 주체사상은 아니지만 선대 수령들이 구축한 혁명사상을 풀어가려는 의지가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김정은 위원장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라 김정일 애국주의로부터 이어져온 선대 수령들의 역사가 김정은 시대에 빛을 발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선대 수령의 혁명 계승인 동시에 완결자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당이 영도하는 체제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과학기술과 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하려는 사회주의 문명국의 건설 비전도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발로’라고 선전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모든 정치적 행위의 가치 기준을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두고 있다. 세계 노동운동의 지도자로서 수령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던 이전의 수령과 달리 국가 운영자로서의 능력을 갖춘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2.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정치적 복선

2012년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이후 북한 사회는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이념과 지향에 맞추어 세팅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의 선대 수령의 업적을 이어받으면서도 지도자로서 입지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었다.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4년 차인 2016년에는 당대회를

36년 만에 개최하면서 ‘혈통에 의한 계승자’에서 당대회를 통한 당원의 추대 형식을 거쳤다. 능력을 검증받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지도자가 되었다는 형식적인 절차를 통과함과 동시에 조선로동당 7차 대회를 기점으로 당의 위원회와 당 조직을 통한 사회 운영에 무게를 둔 사회주의 국가로의 지향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수령 중심의 당 조직을 ‘위원장’체제로 전환하였고, 국가로서 위상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다.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2019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형식적이지만 입법과 행정을 분리한 것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국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주체 사회주의’의 특수 국가에서 ‘사회주의 정상 국가’로의 국가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등장과 함께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수령’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수령에 대한 과도한 신격화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는 수령을 정점으로 한 운영체계를 당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는 김정은 시대의 정치 방식 전환과 관련된다. 수령을 중심으로 한 국가 운영에서 벗어나 당을 중심으로 한 국가 운영에 무게를 둔 결과이다.

북한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사상 성과로 확장하고 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선대 수령과 연결지어 김정은 위원장을 사상가이자 정치적 이론가로서 그 위상을 높이고, 김정은 시대에 이루어진 도시건설 사업을 비롯한 성과를 김정은 시대의 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¹⁸⁾ 상대적으로 혈통 세습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사상가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세계와 어깨를 겨루는 국가로서 애국주의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져 온 사회주의 조선이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핵무력 완성으로 세계에서 인정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IV. 평가 및 전망

북한에서 ‘제일주의’라는 용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비롯하여 여러 ‘제일주의’가 있었다. 하지만 국가적 어젠다는 아니었다.

18) 2019년 7월 4일 『노동신문』 「우리 국가제일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과시하자 - 불세출의 위인, 절세의 애국자를 우리리에서 "그렇다. 오늘의 경이적인 현실은 경애하는원수님의 고결한 애국헌신의 결정체이며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결실이다. 우리 원수님 아니시었다면 우리 인민이 어떻게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을 공지높이 바라볼수 있고 천지가벽의 불길기 타번지는 이 땅을 가슴에 안아보며 끝없는 감격과 희열을 터칠수 있으랴"라고 하면서, "령도자가 위대하여 당도 위대하고 인민도 위대하다. 태양의 강국, 바로 이것이 오늘 행성에 눈부신 빛을 뿌리는 우리 조국의 진모습이고 또 하나의 이름이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을 찬양하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새로운 시대인 김정은 시대의 국가 어젠다가 되었다. 핵무력을 완성하였다고 선언한 2017년 ‘화성 14호’ 시험발사를 ‘세계가 부러워 하는 국가적 경사’로 보도하였고, 새로운 국가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북한식 세계화’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전환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이후로 북한의 국가 운영 방향이 전환되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1980년대 중반 ‘우리 민족주의’가 강조되던 시기에는 민족과 관련한 여러 담론이 등장하였다. ‘김일성민족’, ‘태양민족’, ‘단군민족’, ‘아리랑민족’ 등의 용어가 나왔다.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이후로는 ‘국가’와 관련한 용어들이 등장하였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사회주의 강성국가’, ‘사회주의 강성대국’, ‘백두산강국’ 등의 용어들이 그것이다. 이들 용어는 모두 ‘국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국가로서의 위상 정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으로서도 경제발전을 위한 개방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었다.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국제관광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의 육성, 소비재산업의 육성을 통한 내수 진작과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의 논의가 있었다. 대외 개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대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대내적으로 외풍(外風), 외류(外流)에 흔들리지 않는 사상적 결속이 필요하였다. 애국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효과적인 어젠다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2019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에 공식으로 이를 선언하며 앞으로 대외 관계에서 국제사회의 일원 및 정상적인 국가로서 위상을 높이고 세계화를 추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와 달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경제의 95% 이상이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코로나의 변수도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김정은 시대의 어젠다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은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국가 어젠다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이어 온 내부의 과정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최고지도자의 절대성이 훼손될 수도 있는 위험을 부담하지도 않을 것이다. 북한은 ‘변화’나 ‘대응’보다는 ‘원칙’이나 ‘절대’를 기준으로 유지되는 사회이다.

참고문헌

- 『노동신문』, 김정은, 「신년사」, 2019년 1월 1일.
- 『노동신문』,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 2017년 11월 30일.
- 『노동신문』, 「민족의 자랑 조선의 국견-풍산개(1)」, 2018년 11월 25일.
- 『노동신문』, 「민족의 자랑 조선의 국견-풍산개(2)」, 2018년 12월 2일.
- 『노동신문』, 「민족의 슬기와 용맹한 기상이 어린 조선의 국조-참매」, 2018년 12월 9일.
- 『노동신문』,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더해주는 조선의 국화-목란꽃」, 2018년 12월 23일.
- 『노동신문』,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 2019년 1월 27일.
- 『노동신문』,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는것은 숭고한 애국사업」, 2019년 3월 30일.
- 『노동신문』,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기 위한 방도」, 2019년 2월 20일.
- 『노동신문』,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 2019년 3월 31일.